

## 요한복음 4:43-45의 논리적 연결 - 44절, 45절의 두 연결사 번역을 중심으로 -

정창욱\*

### 1. 들어가는 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4:43-45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43 Μετὰ δὲ τὰς δύο ἡμέρας ἐξῆλθεν ἐκεῖθε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44 αὐτὸς γὰρ Ἰησοῦς ἐμαρτύρησ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ν τῇ ἰδίᾳ πατρίδι τιμὴν οὐκ ἔχει.  
45 ὅτε οὖν ἦλθε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ἐδέξαντο αὐτὸν οἱ Γαλιλαῖοι πάντα ἑωρακότες ὅσα ἐποίησεν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ν τῇ ἑορτῇ, καὶ αὐτοὶ γὰρ ἦλθο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위 세 절의 그리스어 문장에 대하여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다. 『개역개정』은 이 그리스어 구절들을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 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개역개정』의 한글 문장을 보아서 43절과 44절을 연결하는 44절의 접속사 γάρ와 44절과 45절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45절의 접속사 οὖν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으며, 43절의 내용과 44절의 내용 그리고 44절의 내용과 45절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번역은 세 구절들 간에 무난히 연결되는 문장의 흐름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고향에

---

\*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신약학.

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하시지만 고향이 아닌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표준』은 44절과 45절의 논리적 연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44절을 괄호로 묶어 놓는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밝히셨다). 그렇게 해서 45절은 43절과 바로 연결되며 따라서 44절과 45절의 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43절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sup>1)</sup> 『공동』은 45절의 접속사를 해석하지 않는 대신 44절의 내용과 45절의 내용을 잘 조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43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 곳을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44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45 갈릴래아에 도착하자 그 곳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던 것이다.

45절의 ‘그 곳 사람들은’이나 ‘모두 보았던 것이다’ 등은 44절의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환대했음을 표현해 준다. 45절 서두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암시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표준』이나 『공동』 등의 한글 번역은 44절의 연결 접속사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γάρ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sup>2)</sup> 사실 이 접속사는 43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간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같은 『표준』이나 『공동』 등의 번역은 이 부분의 연결이 단순하지 않음을 드러내 준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접속사를 번역해 주는 까닭에 본문 해석의 복잡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NIV를 비롯하여 NIB, ESV, NRSV 등은 한글 『공동』과 같이 44절의 ‘증언하다’라는 동사를 과거완료로 해석하면서 괄호로 묶어 버린다. ESV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43 After the two days he departed for Galilee.

1) 『새번역』도 44절을 괄호로 묶고 있으며 『표준』과는 단지 표현만 몇 군데 다를 뿐이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2) 한글에서 γάρ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지는 수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접속사의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면 문장 구조가 파괴되고 문장 구조에 충실하려고 하면 접속사의 의미가 상실’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호 (1999), 57-79를 보라.

44 (For Jesus himself had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hometown.)

45 So when he came to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having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feast. For they too had gone to the feast.

44절을 괄호로 묶고 동사를 과거 완료로 해석함으로써 그 구절은 삽입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45절은 43절과 바로 연결되어서 이 구절들의 연결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45절의 연결사 ‘so’는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것과는 달리 NKJV, RSV, ASV 등은 44절을 괄호로 묶지 않고 동사를 단순과거로 해석하면서 접속사를 추론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하여 ‘so’로 번역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NRSV의 전신인 RSV는 44절을 괄호로 묶지 않고 접속사 γάρ을 이유를 나타내는 ‘for’로 해석하면서 동사도 과거 완료가 아닌 과거로 해석한 후에 45절의 접속사를 추론의 접속사인 ‘so’로 번역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NKJV의 전신인 KJV은 접속사 οὖν을 ‘then’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새로운 번역본인 NKJV는 이것을 ‘so’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복잡하여 번역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다른 성경들은 앞의 성경들과는 또 다른 번역을 제시해 준다. Amplified Bible은 접속사 οὖν을 반의(反意)적 의미를 전달하는 접속사 ‘however’로 번역하고 있으며, NLT 역시 반의의 접속사인 ‘yet’으로 해석한다. Amplified Bible의 번역은 주목할 만하다.

43 But after these two days Jesus went on from there into Galilee—

44 Although He Himself declar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45 However, when He came into Galilee, the Galileans also welcomed Him and took Him to their hearts eagerly, for they had seen everything that He did in Jerusalem during the Feast; for they too had attended the Feast.

이 번역은 44절의 접속사 γάρ을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 받지 못할 줄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가셨다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 후에 45절에서는 접속사 οὖν을 반의의 접속사로 해석하여, 44절의 예상과는 반대로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번역한다.

본문에 대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이해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 세 구절의 연결에 얽힌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며, 번역자에 따라 본문 내용의 흐름이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우선 요한복음 4:43-46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집약해 보고 다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 2. 본문의 논리적 뒤틀림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요한복음 4:43-46 원문을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번역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43 그리고 이들 뒤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갈릴리로 떠나갔다.

44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45 그러므로, 그가 갈릴리에 갔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명절에 갔었기 때문이다.

45절에 사용한 연결사(*particle*) οὖν은 일반적으로 추론적인(*inferential*) 의미, 곧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 등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는 본문의 연결 논리를 모호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44절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 다음 구절인 45절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내용을 기록해야 마땅하다. 44절에서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리라는 언급을 한 후에 45절에서는 환영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반의(反意)의 접속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45절의 첫 부분은 추론의 접속사인 οὖν을 사용하여 논리의 흐름을 뒤틀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43절의 행동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44절의 접속사 γάρ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하리라고 증언한 것이 어떻게 갈릴리로 간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대로 어떠한 한글 성경도 접속사 γάρ과 연결사 οὖν을 번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연결해 나간다. 그 반면에 몇몇 영어 성경은 44절의 접속사를 ‘for’(왜냐하면)나 ‘now’(그런데)로 번역하여 43절의 내용의 이유

를 나타내거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번역하며, 또한 45절의 연결사를 ‘so’(그래서) 혹은 ‘thus’(그러므로)로 번역하여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추론적(inferential)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의 연관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 3. 제기된 해결 방안

이상과 같은 세 문장의 연결 논리의 모호함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고향’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 πατρίς가 갈릴리가 아닌 다른 장소 곧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요한복음 4:43-45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갔는데(43절), 그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고향인 유다<sup>4)</sup> 혹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44절).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갈릴리에 가자 그곳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다(45절). 이 경우에 44절의 접속사 γάρ는 일반적인 의미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리고 45절의 접속사 οὖν은 일반적인 의미인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며, 그 때에 전후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진다. 그런데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자주 묘사된다는 것이다(1:46; 2:1; 7:42, 52; 19:19).<sup>5)</sup>

리델보스(H. Ridderbos)는 여기에서 절묘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의 견해는 44절의 접속사를 이유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리고 45절의 접속사를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앞의 주장과 일치한다.<sup>6)</sup> 하지만 그는 πατρίς가 유다나 예루살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나타내 준다고 본다. 이 경우에 문제는 예수님이 인용한 격언과 45절의 내용이 서로

3) 린달스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며, 키너는 유다로 생각한다. B. Lindars, *The Gospel of John*,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2), 200-201; C. S. Keener, *The Gospel of John*. v.1 (Peabody: Hendrickson, 2003), 629.

4) 브로디는 육적인 고향이 아닌 영적인 고향, 곧 유다를 이 단어가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T. L. Brodi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93), 228.

5)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도 않는 반면에 갈릴리 나 사렛 출신임이 분명하게 언급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F. L. Godet, *Commentary on John's Gospel* (Grand Rapids: Kregel, 1978), 550을 보라.

6) H. Ridderbos, *The Gospel of John: A Theological Commentary*, J. Vriend,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91), 173-174.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리텔보스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유다에서처럼 유대인 권세자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관심을 끌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에서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과도한 환영은 갈릴리에서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44절을 이해하면서 45절에서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이 의견은 44절과 45절의 원문의 접속사의 의미를 그대로 고정시킨 채, 그것에 내용을 맞추기 위해 다소 무리한 설명을 본문에 이입시키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 다른 학자들은 44절의 접속사 γάρ는 ‘진정으로’(indeed)를, 45절의 연결사 οὖν은 분명하게 ‘그러므로’를 의미하며 따라서 45절의 후반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진정으로’는 45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증언은 그래서 결국은 사실로 판명난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sup>7)</sup> 이 견해를 표명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은 요한복음 2:23-25에서처럼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며 이것은 가식적인 신앙으로 판명된다. 요한복음 2:23-25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들을 보았기에 그를 믿었으나 그 신앙은 후속 구절들에서 결국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겉치레 신앙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접속사 γάρ가 신약에서 그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sup>8)</sup>

칼슨(D.A. Carson)은 바로 앞의 주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나간다. 그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45절 상반절의 내용(“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을 “깊은 역설”(deep irony)을 가지고 썼다.<sup>9)</sup>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표면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2:23-25에서와 마찬가지로 겉치레의 믿음임을 나타내 준다고 보는 것이다. 45절의 접속사 οὖν을 ‘그러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는 역설적인 묘사를 읽어 낸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44절에서 언급된 내용은 성취될 것인데,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6장에서 그를 떠나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사는 순서상 마지막 단계를 지칭하고 있다. 고향 사람들의 영접은 단지 허세여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에 44절의 그의 언급은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강조점은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 이유를 밝히고 있는 45

7) G. L. Borchert, *John 1-11*,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6), 218. 고딧은 이 주장을 자세히 소개한다. F. L. Godet, *Commentary on John's Gospel*, 442.

8) BDAG나 BDF 모두 이 용법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9)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5), 236.

절 후반절에 놓이게 된다. 그들처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인 것이다. 모리스(L. Morris) 또한 칼슨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그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기적에 의존한 것이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sup>10)</sup> 이러한 관찰은 그들의 영접은 표면적인 것으로 결국은 거절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끈다.<sup>11)</sup> 보이스(J. M. Boice)는 여기에 더하여 보다 분명하게 44절의 γάρ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44절에 하신 말씀 곧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에게도 딱 들어맞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갔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한다.<sup>12)</sup>

위의 학자들의 주장은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본문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 놓으려 한다. 그들에 의해서 제시된 본문의 기본적 흐름에 대한 논리는 받아들일 만 하지만 44절과 45절의 연결은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특별히 접속사를 추론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 속에 너무 많은 의미를 집어넣으려 하고 그로 말미암는 두 구절의 연결 고리의 불분명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이 이 주장의 문제다.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 곧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내용은 나중에 드러날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5절의 접속사 οὖν은 이야기의 흐름상 역접의 의미(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해야 하며, 그럴 때에 43절에서 45절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견해를 피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2:23-25에 묘사된 신앙이 겉치레뿐인 거짓 신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앙이 반드시 거짓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며,<sup>13)</sup> 4:45의 신앙도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복잡하게 설명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연결사 οὖν을 ‘그러므로’로 이해할 경우에는 44절과 45절의 연결 논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신학적, 논리적 설명을 시도하기 이전에 이야기의 흐름을 설명

10)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254.

11) 브라운은 44절을 후대 편집자의 삽입으로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이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기에 그 내용이 결국은 이루어진다고 본다.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66), 187-188.

12) J. M. Boice,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ory Commentary. vol.1 John 1:1-4:54* (Grand Rapids: Zondervan, 1975; 2nd ed. 1978), 416-417.

13) 모리스는 비록 4:43-45에서는 칼슨과 같은 주장을 하지만, 2:23-25에 대해서는 견해가 약간 다르다. 모리스에 따르면 기적에 기초한 믿음은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아주 깊은 신앙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인 것만은 분명하다.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81을 보라. 이 믿음은 초보의 신앙으로 반드시 거짓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접속사의 올바른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 구절뿐만 아니라,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 또 다른 구절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연구에도 빛을 던져 줄 수 있다. 문제는 이 접속사가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14)</sup>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접속사 οὖν이 반의(adversative)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요한복음의 구절과 더 나아가 다른 신약 성경의 예문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4. 접속사 γάρ의 의미

οὖν의 의미를 연구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γάρ의 용법을 살펴보자면, 앞에서 다양한 의견을 다루면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γάρ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because)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의 now처럼 가볍게 특별한 무게 없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그런데’나 ‘그러한데’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sup>15)</sup> 어떤 의미로 쓰이든지 45절의 접속사 οὖν을 추론적 의미로 이해할 때에는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초점은 접속사 οὖν의 또 다른 해석 가능성에 놓여진다.<sup>16)</sup>

#### 5. οὖν의 용법 연구

##### 5.1. μὲν οὖν의 반의적 용법

흥미롭게도, 접속사 οὖν은 신약에서 μὲν οὖν 구문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구문의 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에서 접속사 οὖν이 μὲν οὖν 구문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μὲν οὖν 구문은 대개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나타내거나(resumptive) 아

14) 고맷은 이 접속사를 반의적 접속사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F. L. Godet, *Commentary on John's Gospel*, 442.

15) BDAG, 189.

16) γάρ를 이유로 해석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으며, ‘그런데’로 해석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 경우에 45절의 내용은 44절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



니면 ‘새로운 주제로 옮겨가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요약하는(transitional 또는 continuative)’ 기능을 한다.<sup>17)</sup> 모울(C. F. D. Moule)에 따르면, 이 구문은 또한 추론의(inferential) 효력을 나타낸다.<sup>18)</sup> 그런 까닭에 영어 성경 역본들은 이 구문을 아예 번역하지 않거나 단순히 과도적이거나(transitional) 회귀적인(resumptive) 의미 아니면 추론적인 의미인 ‘그러므로’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번역하곤 한다. 번역자들은 이 구문이 대부분의 경우에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고 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9)</sup> 어떤 학자들은 모울의 책에서 추론하여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이 반의(反意)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sup>20)</sup> 그런데 사실 모울의 입장은 분명하지가 않다. 비록 이 구문이 반의의 뜻을 나타내 줄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는 이 용법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sup>21)</sup> 하지만,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구문은 단순히 추론적 의미 ‘그러므로’나, ‘그래서’ 혹은 문장의 연결을 나타내 주는 ‘그런데’ ‘그러한데’ (영어의 then 혹은 now)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반의의 뜻 ‘그러나’ 또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한다.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의 반의적 용법과 관련하여 포터(S. E. Porter)는 고린도전서 9:25만을 제시하는 반면에 접속사  $\omicron\upsilon\nu$ 이 반의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여겨지는 예는 일곱 개를 들고 있다(고전 11:20; 눅 21:14; 요 4:45; 11:6; 12:29; 18:11, 27). 하지만 그에 의해 제시된 일곱 개의 예들은 설득력이 별로 없으며, 특별히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의 반의적 용법에 대해서 하나의 불확실한 예만 나열하여<sup>22)</sup> 결과적으로 그 구문이 반의적 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약의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구문에 대한 연구는 포터가 제시한 예보다 더 많은 구절에서 그 구문이 분명하게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사도행전에서  $\mu\epsilon\nu\ \omicron\upsilon\nu$  구문이 반의(反意)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예가 다섯 개 나타난다: 8:4, 14:3, 17:30, 25:4; 28:5.<sup>23)</sup>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구절에서 접속사 구문의 의미는 분명하게 ‘그러나’ 혹

17) BDF. 451.1. 또한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162-163.

18)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162-163.

19) 포이츠리스(V. S. Poythress)는 접속사  $\omicron\upsilon\nu$ 은 ‘특색 없는 접속사’로 사용되며 이것은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의 논문 ‘ $\delta\acute{\epsilon}\ \omicron\upsilon\nu\ \kappa\alpha\iota$  and  $\text{Ασφινδεται}$  in John’, *NovT* 26 (1984), 328을 보라.

20)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12.

21)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163.

22) 고린도전서 9:25에서 이 구문은 반의(反意)를 나타내는 ‘그러나’의 뜻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문장의 흐름을 연결해 주는 연결사로 ‘그런데’ ‘그러한데’(now)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23) 이 구절들은 필자가 바이블 워크스(Bible Works)를 사용하여 찾아내고 조사하여 얻어낸 것이다.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의적 의미를 전달한다. 특별히 28:5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but’이나 ‘however’로 해석하고 있다(ASV, ESV, NASB, NKJV, RSV, NRSV, GNV, NIB, RWB, WEB 등). 이 구절에서 μέν οὖν 구문은 분명하게 반의적 의미를 전달해 주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8:4의 경우에는 영어 성경 중 하나가(NLT) 이 구문을 ‘but’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 이 구문은 반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sup>24)</sup> 나머지 구절들에서도 접속사 οὖν은 반의적 의미를 나타내 준다. 접속사를 반의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풍성한 의미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μέν οὖν 구문은 이전까지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분명하게 반의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

## 5.2. 접속사 οὖν의 반의적 용법

여러 학자들과 그리스어 사전은 이 접속사의 반의적 용법을 인정하는 반면에,<sup>25)</sup> 대표적인 신약 성경 그리스어 문법서인 BDF는 반의적 의미로 해석하는 일이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규정한다.<sup>26)</sup> 게다가, 학자들에 의해서 접속사 οὖν이 반의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경우라고 제시된 구절들 중에 부정확한 것이 많다. 따라서 접속사 οὖν이 반의적 의미를 드러내 주는 예들을 찾아보는 작업이 중요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 5.2.1. 요한복음 9:18

17절 λέγουσιν οὖν τῷ τυφλῷ πάλιν· τί σὺ λέγεις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ἠνέω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ὁ δὲ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στίν.

18절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ἦν τυφλὸς καὶ ἀνέβλεψεν ἕως ὅτου ἐφώνησαν τοὺς γονεῖς αὐτοῦ τοῦ ἀναβλέψαντος

24) 사도행전 8:4의 경우에 이 접속사를 ‘그러나’ 해석하면, 내용이 분명해진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강제로 흩어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25) Porter, *Idioms*, 215. 대표적인 성경 언어학자인 로우(J. P. Louw)와 나이더(E. A. Nida) 또한 이 접속사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조의 표지’라고 인정한다.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88; 1989), 89.127. 대표적인 성경 그리스어 사전인 BDAG 역시 이 접속사가 미약하나마 반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한다.

26) BDF. 451.1

『개역개정』

17절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하니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접속사는 번역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많은 영어 성경은 18절 초반부에 있는 접속사 οὖν을 역접 접속사로 해석한다(KJV, NJB, NKJV). 반의를 전달하는 접속사로 이해할 때 17절과 18절 사이의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각 장애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그가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시각 장애인은 체험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깨달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 맹인이 아닌 자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다.

5.2.2. 요한복음 11:6

4절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ὕτη ἡ ἀσθένεια οὐκ ἔστιν πρὸς θάνατον ἀλλ’ ὑπὲρ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δι’ αὐτῆς.

5절 ἡγάπα δὲ ὁ Ἰησοῦ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6절 ὡς οὖν ἤκουσεν ὅτι ἀσθενεῖ, τότε μὲν ἔμεινεν ἐν ᾧ ἦν τόπω δύο ἡμέρας,

『개역개정』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саро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본문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시 한글 성경에서는 접속사의 흔적이 전혀 없다. 이 구절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반어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스어 문법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언급해 보자면, 고뎃(Godet)은 6절 후반절의 연결사 μέν에 주목하여, 이 연결사가 7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sup>27)</sup> 이 경우에 7절에 δέ가 있다고 가정하여 μέν과 δέ는 각각 ‘그것은 사실이 다’(it is true)와 ‘그러나’(but)로 해석된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나사로의 발병)을 들었을 때, 그곳에 더 머무셨다. 그것은 사실이다(μέν); 그러나 후에 그가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다.” 이 견해의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μέν이 거의 언제나 δέ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만일 요한이 이 구문을 의도했다면 δέ를 생략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여전히 6절의 접속사 οὖν의 번역인 ‘그러므로’는 문장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든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더 지체한 이유를 4절에서 찾으려 하며 따라서 접속사 οὖν은 구태여 ‘그러나’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sup>29)</sup> 다시 말해 6절을 4절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을 더 머무셨다’로 이해한다. 이 같은 설명은 문맥 속에서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을 더 머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병은 심각한 병이기에 고치기만 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4절의 내용이 반드시 6절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사로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이들을 머무셨다는 추론적 설명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논거가 약하며 6절 초반부의 접속사 οὖν은 4절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앞 절인 5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을 사랑했고 따라서 나사로의 병환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을 더 지체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본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그 압력 때문에 줄은 끊어질 것이고 실타래는 풀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 접속사 οὖν의 의미를 단순하게 반의적으로 해석하여 본문을 이해해 나가면서 뒤에 첨가될 해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설명이 나오기 전에 짜 맞추게 되면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된다. 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나사로와 그의 여자 형제들을 사랑했다(5절).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달려가지 않고 지체한다. 따라서 6절의 접속사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해석해야 마

27) Godet, *Commentary on John's Gospel*, 732.

28) Ridderbos, *The Gospel of John: A Theological Commentary*, 388, 각주 24.

29)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479;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408; R. A. Whitacre, *John*,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Leicester: InterVarsity, 1999), 279-280.

땅하며 그 의미와 더불어 주어지는 본문의 이해로 충분하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영어 성경 중에서 NIV, NJB, NIB 성경은 ‘yet’으로 이 접속사를 번역한다.

### 5.2.3. 사도행전 23:21

20 εἶπεν δὲ ὅτι οἱ Ἰουδαῖοι συνέθεντο τοῦ ἐρωτῆσαί σε ὅπως αὐριον τὸν Παῦλον καταγάγῃς εἰς τὸ συνέδριον ὡς μέλλον τι ἀκριβέστερον πυνθάνεσθαι περὶ αὐτοῦ.

21 σὺ οὖν μὴ πεισθῆς αὐτοῖς· ἐνεδρεύουσιν γὰρ αὐτὸν ἐξ αὐτῶν ἄνδρες πλείους τεσσαεράκοντα, οἵτινες ἀνεθεμάτισαν ἑαυτοὺς μήτε φαγεῖν μήτε πιεῖν ἕως οὐ ἀνέλωσιν αὐτόν, καὶ νῦν εἰσιν ἕτοιμοι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ἀπὸ σοῦ ἐπαγγελίαν.

『개역개정』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한글 성경은 20절 마지막 부분을 약한 이유를 나타내도록 번역한 반면에, 많은 영어 성경은 21절 초반부의 접속사 οὖν을 ‘그러나’로 해석한다(GNV, NAB, NKJ, NLT, NRSV, RWB, WEB등). ASV만이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therefore)로 번역한다. 문맥상 분명하게 접속사 οὖν은 반의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문하기 위해 공회로 데리고 오라고 모의했으나, 그 요청을 들어 주지 말라고 친부장에게 간청하는 내용이다.

### 5.2.4. 로마서 10:14

13 πᾶς γὰρ ὃ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14 Πῶς οὖν ἐπικαλέσωνται εἰς ὃν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πῶς δὲ πιστεύσωσιν οὐ οὐκ ἤκουσαν; πῶς δὲ ἀκούσωσιν χωρὶς κηρύσσοντος;

『개역개정』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어 접속사를 해석하지 않는 한글 성경이 14절에서 접속사 οὖν을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단어, 곧 ‘그런즉’으로 번역한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구절들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유독 이 구절에서 ‘그런즉’으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논리적으로 쓰여진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논리적인 연결 고리를 잘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영어 성경들 중 다수는 ‘그러나’로 해석하여 대조를 이룬다(ESV, GNV, NAB, NLT, NRSV). 이 구절에서 접속사 οὖν은 반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약해 보자면, 접속사 οὖν은 신약 성경에서 반의(反意)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두 차례 이 용법으로 쓰인다. μὲν οὖν 또한 사도행전에서 다섯 차례 반의(反意)의 접속사로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구문이 쓰일 자리에 종종 접속사 οὖν이 대신 사용된다. 따라서 οὖν이 반의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에 근거하여 44절의 접속사 γάρ를 단순 연결 접속사로 보고, 45절의 접속사 οὖν을 반의의 접속사로 해석하여, 요한복음 4:43-45는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43 이틀 뒤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갈릴리로 갔다.

44 그런데(그러한데) 예수님은 친히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했다.

45 그러나 그가 갈릴리에 갔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예루살렘에) 갔던 까닭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으니 존경받지 못할 줄 알기에 고향을 회피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44절의 격언과는 달리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

렘에서 명절 중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적에만 근거한 믿음이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결론난다고 해서 45절을 미리 그 내용에 끼워 맞추는 필요는 없으며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45절의 분사 구문 πάντα ἔωρακότες ὅσα ἐποίησεν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ν τῇ ἑορτῇ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에서 예수님의 증언과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한 이유를 발견한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존경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영접은 이 후의 구절들에서 드러나듯이 진정한 영접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너희는 이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탄식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드러날 사항이지 45절에서 밝혀질 내용이 아니다. 결국 45절의 의미는 접속사가 바로 앞 구절인 44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반의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이해할 때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 <주요어>(Keywords)

요한복음 4:43-45, 접속사 οὖν, μέν οὖν 구문, 반의(反意)의 접속사, 기적에 근거한 믿음.

John 4:43-45, Particle οὖν, Phrase μέν οὖν, Adversative Particle, Sign-based Faith.

30) 앞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1:6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며, 그 곳에서도 접속사 οὖν을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이해할 때 그 부분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그 구절에서도 4:45에서와 같이 접속사 οὖν은 바로 앞 구절과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 본문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Funk, R., trans.,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ice, J. M.,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ory Commentary. vol.1 John 1:1-4:54*, Grand Rapids: Zondervan, 1978; org. ed. 1978.
- Borchert, G. L., *John 1-11*,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6.
- Brodie, T.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93.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66.
- Carson, D. A.,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66.
- Danker, F. W.,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W. Bauer, trans., *Griechisch-deutsches Woe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s Testaments und der Uebrigen Urchristlichen Literatu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org. ed., 1957.
- Godet, F. L., *Commentary on John's Gospel*, Grand Rapids: Kregel, 1978.
- Keener, C. S., *The Gospel of John*, vol.1, Peabody: Hendrickson, 2003.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88; 1989.
- Lindars, B., *The Gospel of John*,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2.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Ridderbos, H., *The Gospel of John: A Theological Commentary*, Vriend, J.,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91.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Poythress, V. S., ‘δέ ουύ και and Ασψυδετον in John,’ *NovT* 26 (1984), 326-342.
- Whitacre, R. A. J.,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Leicester: InterVarsity, 1999.



<Abstract>

**Logical Connection of the Passage in John 4:43-45:  
Translation of Two Particles in 4:44 and 4:45**

Prof. Chang-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Two particles,  $\gamma\acute{\alpha}\rho$  and  $\omicron\upsilon\upsilon$ , appear in John 4:44 and 4:45, respectively. A trivial problem arises with the conjunction  $\gamma\acute{\alpha}\rho$  in v.44, which usually indicates the causal meaning ‘because’ or ‘for’: (v.43) After the two days, He (Jesus) left from there to Galilee, (v.44)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hometown. The logical flow of the two verses requires an explanation. This problem, however, is to be easily resolved, since the particle may function simply as a narrative marker ‘now’, or ‘then.’ In contrast, the conjunction  $\omicron\upsilon\upsilon$  in v.45 which connects the sentence in v.45 with that in the preceding verse causes a serious problem. The normal meaning of the particle, i.e. ‘therefore’ or ‘so’ makes the logic obscure; (v.44)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hometown (v.45). Therefore, Galileans received Him when He arrived in Galilee (His hometown), because they had seen all things He did in Jerusalem during the feast; for they too had gone to the feast.

Various explanations thus have been suggested by scholar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sage in John 4:43-45. However, they have never tried to clarify the usage of the particle  $\omicron\upsilon\upsilon$  even though such work is necessary; they usually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 problem by suggesting various theological explana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John 4:43-45 depends on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particles  $\gamma\acute{\alpha}\rho$  and  $\omicron\upsilon\upsilon$ . Especially, the study illustrates that the conjunction  $\omicron\upsilon\upsilon$  conveys the adversative or contrastive force in some instances in the Gospel of John and other NT books. The conjunction should be thus translated and interpreted as indicating the adversative conjunctive sense in John 4:44-45. As a result, the conjunction needs to be translated as ‘however’ or ‘nevertheless’ in 4:45, which makes the logic of the narrative clear.